

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, 방산 수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

- 관계부처·기관 합동 기동·화력 분야 방산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-

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(단장: 기획재정부 제1차관, 이하 ‘지원단’)이 방위산업 분야 수출 애로 해소에 나섰다. 지원단은 6월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동·화력 분야 방산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< 방위산업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5.6.24.(화) 14:30~16:30 / 한국수출입은행(서울 여의도동)
- 참석자 : 원스톱수출·수주지원단(김동준 부단장 주재), 국방부, 국토부, 방위사업청, 육군본부, 국방과학연구소(ADD)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코트라, 방산업체 5개사 (풍산, SNT모티브, 다산기공,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LIG넥스원) 및 방산진흥회 등
- 주요 내용 : 기동·화력 분야 방산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

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K9 자주포, 천궁-II 등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동·화력 분야 방산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점검하고,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 지원단은 올해 3월부터 방위사업청 인력을 지원단에 보강하고,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방산업무 유관기관을 지원단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방산수출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.

참석 기업들은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금융·물류, 자격시험장 확보, G2G 협력,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. 이에 참석기관들은 수출금융 지원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지원, 군 보유 자격장 이용 지원방안, 정부간 외교·안보·산업협력 강화 등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 및 계획을 설명하고, 신속한 수출허가·외국환거래신고 규제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.

김동준 지원단 부단장은 “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한국의 방위산업은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”라고 강조하며, “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내 방산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 수주인프라지원팀	책임자	팀 장	공경화 (02-6000-5784)
		담당자	사무관	이동훈 (leedonghun7539@korea.kr)